

생활정보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생활 이르면 연말부터 결혼식·회갑연·상가(喪家) 등에서도 종이컵·나무젓가락 등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재래시장을 비롯한 매장면적 10평 미만의 모든 업소와 약국·서점도 1회용 비닐봉투나 쇼핑백을 공짜로 나눠줄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추가,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수도요금 최고 10.8% 올랐

9월부터 가정용 수도요금이 지역에 따라 최고 10.8% 오를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5일부터 t당 1백16원인 광역상수도 요금을 1백52원으로 31%, 담양수는 t당 16원에서 22원으로 40%를 각각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t당 1백73원에서 1백92원으로 10.8%, 경기 10.4%, 서울 3.8%의 인상요인이 생긴다.

휴가철 최신전화 서비스

통신 휴가를 떠나 집을 비운 사이에도 한국통신이 제공하는 최신전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전화를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국민전화 100을 눌러 특수서비스를 접수한 후 사용 때 *+88+최신희망번호+*를 순서대로 눌러주면 된다.

전화 한통화로 창업정보

창업 전화로 창업정보를 접할 수 있는 '700 전화서비스'가 개설됐다. 이 서비스는 12일부터 실시됐으며, '700-3304'(미래유통정보연구소)로 걸면 총 8개 항목으로 창업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주요 정보는 최신 국내외 창업소식을 비롯해 창업적성검사, 국내 유행상품 소개, 자금규 모별 소개, 창업장소 소개 등이다.

고졸인턴사원 지원연령 확대

취업 노동부는 최근 지금까지 실업계고 또는 일반계고 졸업과정 졸업자(18~19세)만 지원할 수 있었던 고졸 인턴사원 지원자격을 만 24세 이하의 고졸대학 소지자로 확대했다. 인턴사원 희망고졸자는 가까운 고용안정센터(1588-1919)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처는 노동부 고학력대책팀 (02)500-5646

20분전까지 요금 전액 환불

영화 앞으로 영화표를 산 사람들은 상영 시작 20분전에는 요금 전액을, 그 이후부터 상영 시작전까지는 절반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말 영화관람 표준약관 승인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관을 마련, 오는 9월부터 보급키로 했다.

'신창원 신드롬' 사회부패 반증

뇌물·부조리·추태 등 지배층에 대한 반발 '연민의 정'까지 보여

'신창원 신드롬'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30개월의 탈주기간중 숨겨있던 '비밀과 거짓말'이 속속 드러나면서 다소 수그러들기는 했으나 슨스한 뒷맛을 지울 수 없다. 연일 계속된 신창원의 범죄행각을 접하면서 사람들은 내성으로 탄성을 지르고 통쾌감과 동시에 연민의 정까지 나타냈기 때문이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사회 문제 전문가들은 신창원의 범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각을 통해 우리 사회의 온갖 부조리와 비리, 모순, 추태 등을 적나라하게 보면서 대리만족을 했다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PC통신에 '신창원 동호회'가 생기고 중학교 1학년 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0명 가까운 학생들이 "신창원은 좋은 사람이며, 검거돼서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인것이 이를 여실히 입증한다. 이에 대해 박찬웅교수(동국대 사회학)는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등 상대적으로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지배층에 대해 갖고 있는 반감을 표출한 것"이라며 "신창원 신드롬은 우리 사회의 계층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박교수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창원의 범죄가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배층이 그만큼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모범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병리현상'이라고 덧붙였다. 범죄사회학자 심영희 교수(한양대 사회학)는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돌아오고 있는 지배규정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이 그가 세상과 대화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고아원을 돌보는 등 착한 일을 하는 자신의 또다른 모습과 불우했던 과거로 세인의 관심을 끌기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제시하고 이해와 동정심을 유도했다. 결국 그는 '범죄스타' 의식을 갖고 사회문제를 내세워 자기합리화를 꾀하려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심교수는 "신창원 신드롬을 극복하는 길은 사회병리현상을 제거하는 진정한 개혁에 있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체 반대 서명 7월 26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27개 사회환경단체로 구성된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 회원들이 시민들로부터 그린벨트 해체반대를 위한 가두서명을 받고 있다.

해마다 카드로 버리는 돈 60억

해마다 버리는 카드를 돈으로 환산하면 60억이나 된다는 통계가 나왔다. 정확한 집계는 없지만 현재 국내에 유통중인 신용카드에 대한 것이 카드업계의 추산. 국민 1명당 1개꼴로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셈이다. 지난 한해 동안 새로 찍혀 나온 카드 수만도 무려 700여만장. 하지만 이중 30~40%는 6개월 동안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로 분류된다. 해마다 최소 200만장의 카드가 버려지거나 지갑 속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다. 카드 1장을 제작하는 데 드는 원가는 300원 가량. 여기에 식별번호 등을 넣는 오퍼레이팅 비용과 인건비, 발송비 등을 포함하면 2,500~3,000원에 달한다. 결국 매년 60억원이 버려진다는 얘기다. 고객들도 꼭 필요한 카드만 발급받는 자세가 필요하지만 카드업체와 제휴은행의 과다한 고객유치 경쟁이 사실상 주된 원인이다. 한 편이라도 절약해야 하는 지금, 돈 아껴 저축하라고 권장하는 은행들부터 스스로 절약의 정신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회원 7천만명의 중국 법륜공 邪教인가 수련단체인가

최근 정부당국으로부터 '불교에 부속된 사교(附佛邪教)' 또는 '민간사교'라는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는 중국의 법륜공(法輪功)은 실제로 불법사교인가. 법륜공은 기공수련의 한 단체로 현재 약 7천만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법륜공은 지난 4월 한 잡지가 법륜공 수련으로 정신장애를 일으킨 사례가 있다고 보도한 것에 항의하는 시위군중을 무력으로 해산시킨 중국당국과 마찰을 빚기 시작했다. 이에 중 국당국은 법륜공을 사교로 규정하고 엄중 감시에 나섰고, 법륜공의 지도자인 이홍지는 "불공정한 취급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법륜공은 불교용어인 법륜과 접법륜 등을 말하고 가부좌를 한 수행법 등이 '부불사교'라는 비난을 초래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홍지는 "법륜공은 종교가 아니다. 심성을 닦는 수련단체일 뿐이다"라며 다른 기공단체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대접을 촉구하고 있다.

시론

녹색이 주는 혜택

강력한 개발독재 정권 아래서 80년대 초반까지 그린벨트는 감히 입에 오르내릴수 없는 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린벨트의 경제선은 이웃을 나누고 심지어 대지 한가운데를 지났다. 그러나 주민들은 땀과 눈물 없이 얻어낸 것만 변변한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다. 이 금기의 그린벨트제도는 서울지역의 팽창을 막기위해 71년 박정희 정부가 영국의 그린벨트와 일본의 근교지대제를 본따 처음으로 공식 지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총 여덟차례에 걸쳐 전국의 5.4%에 이르는 14개 권역을 그린벨트로 편입시켰다.

지난 28년간 지정된 그린벨트제도에 대한 평가는 크게 틀로 나뉜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장점과 거주민의 생활 불편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주어지므로 야 한다는 주장이 그 골자다. 이런 쟁점을 뒤로 하고 정부는 급박하게 7월 22일 '그린벨트 해체'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춘천-청주-전주-여수-진주-통영-제주권 등 7개 중소도시권역은 그린벨트를 완전히 해제한다. 춘천-진주권은 해제하되, 한강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해 대체지정할 예정이며 이 해제권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환경평가를 거쳐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 등 7개 대도시권역의 경우는 그린벨트제도가 존속되지만, 부분적으로 해제가 가능하며, 해제 기준은 역시 지자체의 환경평가 결과에 따른다는 것이다.

이런 정부의 그린벨트 해체에 서 많은 전문가가 우려하는 것은 미래세대가 누릴 혜택을 현재대가 환경파괴로 없애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환경적으로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은 상수원을 끼고 있는 춘천-진주-전주권으로 각각 팔당호와 낙동강 수계를 오염시키고, 해상국립공원과 인접한 통영의 경우는 국립공원의 파괴가



최 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그린벨트 해체 무책임한 선택 환경파괴 불보듯”

론 노력을 하지 않은 정부로서는 28년간 커진 주민의 요구를 감당하기에 박차고 결국 '그린벨트 해체'라는 가장 무책임한 카드를 선택하게 되었으리라. 정부의 무책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2일 발표한 해체안에서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권역과 기준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해제지역은 전혀 거론하지 않고 '환경평가'라는 미명하에 지자체에 슬쩍 넘기고 만다. 이는 해체에 따른 대규모 민원과 위험부담을 정부가 전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표를 의식한 일선 지자체가 주민들의 해체압력을 견디지는 쉽지 않을 것이며 당연히 그린벨트 해체지역은 넓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합동조사의 공개 제안을 환영하며

조계사 전임 재산관리인 진병열(법명: 현근)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횡령한 금액이 253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금액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간의 장부와 조계사 명의 및 한 명의 (조계사 공용으로 사용된) 조계사 신용협동조합 통장 거래내역을 근거로 산출한 것이다. 횡령 금액은 조계사와 위 개인 통장에서 거래된 시중은행 거래내역과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원천 횡령한 금액을 포함하면 훨씬 늘어날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더구나 3년이 아니라 전 재산관리인 진병열이 재임한 기간인 12년의 재산관리내역을 조사하면 상상하기 힘든 금액이 횡령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 횡령금액을 확정할 근거는 전 소유자들이 작성한 장부와 거래한 통장, 여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전임소임자나 그 누가 와서 확인하고자 해도 공개할 것이다.

불기 2543(1999)년 7월 29일 전 조계사 총무(박정균, 법명: 선광 또는 적설)가 교계 기자들을 초청해서 전 조계사 재산관리인을 비롯한 14명을 형사고소한 내용이 중상모략이라고 주장하며 의혹이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제안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을 수용한다.

- 조계사 전임 재산관리인 진병열의 횡령금액 합동조사 제안**
1. 기 간: 불기 2543년 8월 5일 ~ 9월 5일
 2. 시 간: 오전 9시 ~ 오후 6시
 3. 장 소: 조계사 중무소 내 회의실
 4. 참여자: 중앙종회 의원 2명, 총무원 집행부 2명, 전 현직 재산관리인, 총무, 재무, 경리책임자, 양측 변호사, 공인회계사, 신도회 회장, 관음회 회장, 대승분자회 회장, 반야회 회장, 청년회 회장, 교계 기자, 일반기자 등
- * 소요경비는 조계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 재산관리인 지 흥

낙태영가를 천도해 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중에 가장 큰 죄가 자식이 부모를 죽인 죄이며 그 다음은 태아를 유산시켜 죽인 죄입니다. 우리는 그 어린 생명을 죽이고도 참회하지 않고 태아영가들의 원한을 모른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월 지정제일마다 그 어린 생명의 혼을 해탈시켜 드립니다. 낙태영가의 원한은 사업을 망하게 하고 자식을 방해하게 하며 부부를 이혼시킬 정도로 무섭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조상영가 열명보다 수자영가 한명이 생활속에 더 큰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세요. 유산했거나 태어나서 죽은 아기의 영혼을 함께 천도해 드립니다.

◆비용: 영가 1위당 3만원(부처님전에 올리는 공양과 못, 유유, 과자등을 포함) (본인의 주소와 성명, 생년월일을 동봉할 것. 집안식구의 인식사항을 동봉해도 무방함)

◆일시: 매월 지정제일(음력 18일)

◆연락처 및 온라인번호 (053)957-9551, 011-398-9807 성불사, 법장스님

축협	613-72-14831-417	예금주: 장봉임
제일은행	153-20-227927	

대구시 동구 신암4동 648-5 광명수자 성불사, 주지 법장 합장